



순천시,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공동체 문화 확산

자발적 행사 물품 기부 · 행사 후 장애인복지관에 성금 전달



뒷밭과 정원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농업복합문화축제로 지난달 신대도시농업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회 순천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이 도·농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켰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캠퍼서에서는 서울시 소비자 67

명이 방문해 약 350여만원의 직거래가 이루어져 농가소득에 기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졌다. 뒷밭자치회(대표 조승호)에서 행사용 뒷밭채소 20상자, 순천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정상태)이 시민배부용 모종 2000본, 순천시도시농업연구회(대표 이현철)에서 모종 1000본과 50만원 상

당의 상품을 기부해 원활한 행사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 행사 후에는 체험 또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던 기업 및 단체 16개소에서 59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지난 5일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이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시민 스스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함께하는 행보를 누리고자 하는 의식이 보편화됐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개최된 '순천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시의 대표적인 농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뒷밭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과 소통으로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도시농업을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낙안배 이곡 정보화마을' 3년 연속 행자부장관상

전남도 44개 정보화마을 중 유일하게 선도마을 선정

순천시 낙안배 이곡 정보화마을이 3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국 정보화마을 334곳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것.

행정자치부는 전국 정보화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운영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판매실적, 소득증가율, 재구매율 행사참여, 상품개발 등 지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

과 상위 50% 이내인 마을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하위 부진마을에는 컨설팅을 추진한다.

낙안 정보화마을은 전라남도 44개 정보화마을 중 유일하게 선도마을(전국 상위 10%)로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 대비 5% 소득증가율과 함께 5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했고, 꾸준한 행사참여와 상품개발을 통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낙안배

와 낙안민속오이는 비옥한 토지와 청정유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특히, 명품 낙안배 홍보를 위해 계절별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꽃이 피는 봄에는 배꽃축제·배숙기 체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배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이 지역농가의 소득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 혁신도시에 '빛가람 콘텐츠 타운' 들어선다

게임 · VR/AR 등 콘텐츠기업 8개사와 투자협약 체결



나주 혁신도시에 콘텐츠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기업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게임,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콘텐츠 분야 전문기업들로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이전에 오거나 신규 창업한 기업들이다.

지난 3월 1차로 투자한 14개 기업과 함께 상반기에만 총 22개사를 유

치하는 성과를 올림에 따라, 지역의 청년들에게 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나주에 유치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의 성장기반을 갖추었다.

기업육성센터는 오는 8월 개소하여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과 인력양성, 지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전남 고유의 스타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을 계기로, 전남도에서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빛가람 콘텐츠 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2년까지 관련 기업 100개 유치와 청년 일자리 1,500개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인숙 전략기획본부장은 "나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콘텐츠기업과 협약식을 아홉 콘텐츠진흥원에서 갖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들이 지방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콘텐츠기업들과 함께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되도록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식이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콘텐츠밸리가 공존하여 새로운 산업지형으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들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주간 특별교육 실시

올해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양시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8개 여성과 남성단체 회원,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한 여성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이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유진 박사가 초청됐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군, 저출산 극복 '팔 걷었다'

화순군은 사회단체와 저출산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준비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출산 위기극복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화순군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31명으로 도내 20위이며 전국 평균인 1.239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저출산 관련 기초 설문조사 결과 61.7%가 군의 저출산 실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저출산에 대한 군민인식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캠페인에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월 중에 관내 사회단체와 저출산 군민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체결, 거리행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손주 돌보기 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문구가 새겨진 홍보용품과 2017년 출산정책 리플릿을 제작, 7월부터 배포하고 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출산관련 안내책자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로 문의하거나 지인에게 전해들은 내용으로 정보를 취득 했는데, 이러한 불편이 리플릿 배포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릿에는 임신·출산, 보육·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등 38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출산장려 홍보문구가 담긴 가제수건을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호남통계청과 지역 특산물 맞춤형 통계 개발

광양시는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매실 등 지역 특산물 맞춤형 통계 개발을 위한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농업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활용과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광양시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단감·곶감에 대해 경영실태를 파악한다.

시는 이번조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전준비를 거쳤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매실 1,000㎡이상 단

감·곶감은 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매실 724농가, 단감·곶감 669농가 등 총 1,393농가다.

조사요원인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물 재배면적과 분포, 경영형태, 농가의식 전반 등 33개~36개 항목을 조사한다.

광양=김충권 기자

질문이 많은 교실 행복한 학교

빛고을 제12회 독서마라톤

2017. 4. 7 (금) - 11. 7 (화)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